

# 2017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정답

|    |   |    |   |    |   |    |   |    |   |
|----|---|----|---|----|---|----|---|----|---|
| 1  | ③ | 2  | ③ | 3  | ⑤ | 4  | ⑤ | 5  | ③ |
| 6  | ② | 7  | ③ | 8  | ⑤ | 9  | ② | 10 | ① |
| 11 | ④ | 12 | ④ | 13 | ① | 14 | ⑤ | 15 | ① |
| 16 | ⑤ | 17 | ① | 18 | ③ | 19 | ② | 20 | ① |
| 21 | ③ | 22 | ② | 23 | ③ | 24 | ① | 25 | ④ |
| 26 | ③ | 27 | ③ | 28 | ① | 29 | ⑤ | 30 | ① |
| 31 | ⑤ | 32 | ③ | 33 | ② | 34 | ④ | 35 | ⑤ |
| 36 | ⑤ | 37 | ④ | 38 | ④ | 39 | ④ | 40 | ① |
| 41 | ② | 42 | ② | 43 | ② | 44 | ⑤ | 45 | ② |

### 해설

#### 1.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을 이해한다.

[B]에서 ‘부원 3’의 질문에 ‘부원 1’은 독서가 동아리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원 1’이 작년의 활동을 토대로 독서가 동아리 활동으로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부원 1’은 작년 활동에 대해 거리가 멀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동아리 활동의 문제점을 근거로 교내에서 독서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A]에서 ‘부원 2’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학교가 깨끗해질 것을 근거로 학교 운동장 옆 공터를 텃밭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근거로 텃밭 가꾸기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B]에서 ‘부원 3’은 환경에 대해 아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원 1’에 동의하면서도, 동아리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독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부원 3’은 ‘부원 1’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독서 활동이 동아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B]에서 ‘부원 4’는 부원마다 읽고 싶은 책과 읽는 속도가 달라 같은 책을 동시에 읽기 어려운데 독서 활동에서 이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부원 1’에게 묻고 있다. 따라서 ‘부원 4’는 독서 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하며 ‘부원 1’에게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 2. [출제의도]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이해한다.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독서 활동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등에서 토의 참여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의에서 부장이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기회를 제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우리 ‘자연 사랑’ 환경 동아리는 매년 동아리 첫 시간에 그 해 어떤 활동을 할지 토의합니다.’라는 부분에서 토의를 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작년에는 하천 정화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활동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라는 부분에서 토의에서 논의할 주제를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독서를 통해 환경 관련 공부를 하자는 의견과 운동장 옆 공터를 텃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라는 부분에서 토의 참여자들이 제안한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먼저 활동에 대한 제안을 들은 후 부원들의 질의를 받고, 투표를 통해 활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

다.’라는 부분에서 토의가 제안 듣기, 질의응답, 투표 를 통한 결정이라는 절차로 진행될 것임을 소개하고 있다.

#### 3. [출제의도] 자료를 참고하여 토의 답변을 완성한다.

‘부원 4’는 텃밭을 가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 답변을 위해 ‘부원 2’가 활용한 자료는 텃밭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할 일과 모여서 할 일을 구분하여 하였다는 것과 이로 인한 효과로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부원 2’는 ‘부원 4’의 질문에 텃밭의 구역을 나누어서 자신이 맡은 구역을 가꾸고 협업이 필요한 일은 함께 하여서 이를 통해 책임감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4. [출제의도] 발표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한다는 것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청중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발표자가 마무리 부분에서 ‘멘토의 유래와 그 의미’라고 언급한 것을 발표 내용에 대한 요약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우리 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멘토링’을 들면서 발표자와 청중이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② ‘멘토’, ‘멘티’ 등의 용어를 풀어 줌으로써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③ 화제인 ‘멘토’와 관련이 있는 『오디세이』 속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고 있다. ④ ‘여러분, 우리 ~ 아시지요?’, ‘멘토라는 말은 ~ 생겨났을까요?’, ‘잠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등의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등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며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청중이 발표 내용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5.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청중 3’은 발표 내용 중 ‘스승을 뜻하던 멘토라는 말이 오늘날 다른 의미로도 쓰이게 된 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청중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는 것은 청중의 반응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청중 1’은 발표자의 주제 선정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말하고 있을 뿐, 발표의 표현 방식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청중 2’는 발표에 활용한 자료와 관련이 있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나, 발표에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④ ‘청중 1’은 발표자가 한 발표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 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계기가 되었으리라 추측하고 있으나, 발표자가 한 발표의 동기에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또 ‘청중 3’은 발표자가 한 발표의 동기에 공감하고 있다기보다, 발표자가 한 발표의 내용으로부터 자신의 발표 동기를 구하고 있다. ⑤ ‘청중 2’와 ‘청중 3’ 모두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발표자의 의견인지 구분하며 듣고 있지는 않다.

#### 6. [출제의도] 글의 초고를 점검한다.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설문지와 함께 인용해야겠어.’는 초고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1문단에 급식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급식 후 버리는 잔반의 양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급식 도우미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초고의 2문단에 한 끼의 담긴 식사에 담긴 정성과 노력을 모른다는 내용에서, ‘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잔반 문제의 원인으로 언급함

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초고의 3문단에 잔반 없는 날 운영 방식 개선, 급식 도우미 동참, 다른 학교 성공 사례에 관한 내용에서, 잔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문단에서 잔반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초고의 3문단에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내용을 통해,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한다.

(나)의 영양교사 인터뷰는 학생의 음식에 대한 태도에 관한 자료이므로, 2문단에 자율 배식이 잔반의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1의 평균 잔반량과 잔반 처리 비용은 1문단에 급식 후 잔반의 양이 많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② (가)의 2의 학생 1인당 평균 잔반량 통계는 2문단에 잔반 없는 날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발휘된다는 내용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④ (다)의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은 3문단에 잔반을 줄이면 환경과 급식의 질 등에서 얻게 되는 이점이 많다는 내용의 근거를 추가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⑤ (라)의 신문 기사의 중학교 사례는 3문단에 잔반을 줄이는 데 성공한 학교의 실제 사례를 보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 8. [출제의도] 글의 초고를 고쳐쓰기 한다.

㉠의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이고, ‘벌리다’는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이므로, ‘벌이다’가 적절하므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오답풀이]** ① ㉠은 문맥상 뒤에 오는 체언 ‘필요성’을 수식하는 말이므로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것이 적절하다. ② ㉡은 우리 학교 점심시간이 다른 학교 시간에 비해 짧다는 내용으로, 이는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③ ㉢에는 학생들이 버리는 대상이 나와야 하므로, ‘음식물’이라는 목적어를 첨가한다. ④ ㉣은 ‘함께 동참하는’에서 ‘동참(同參)’은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이므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함께’를 삭제한다.

####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2문단에서 ‘극심한 남극의 추위를 황제펭귄은 어떻게 견뎌낼까?’라고 묻고 이에 대한 답으로 ‘허들링’을 소개하며 황제펭귄이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황제펭귄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1문단에서 ‘황금색 목도리를 두른 듯한 모습의 황제펭귄’, ‘항아리처럼 둥근 배’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황제펭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에 따라 [A]에는 글쓴이의 생활 태도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드러나야 한다. ①은 ‘나는 황제펭귄이 나보다 더 현명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라고 하면서 ‘내 입장만을 생각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생활 태도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협력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생활해야겠다.’며 앞으로의 생활 태도에 대한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는 추위를 곳곳이 이겨내는 황제펭귄을 통해 나약한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생활 태도에 대한 다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황제펭귄의 모습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감상은 드러나 있지만 자신의 생활 태도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④ 황제펭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

지만, 자신의 생활 태도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⑤ 시련이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 주므로 시련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야 한다는 교훈적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국어의 활용에 대해 이해한다.

‘이다’의 활용 양상은 대체로 형용사의 활용 양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동사는 형용사에 비해 ‘이다’와 활용 양상이 유사하다는 것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국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체언에 ‘이다’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표현이다.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형용사가 활용할 때는 ‘예쁘구나’와 같이 ‘-구나’가 쓰이고, ‘예뻐라!’와 같이 ‘-어라’가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형용사는 활용할 때 감탄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용언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일을 활용이라 한다. 따라서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에 붙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이다’가 활용할 때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다’는 활용할 때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국어의 품사별 특성을 이해한다.

‘열어라’는 어간 ‘열-’과 어미 ‘-어라’로 분석할 수 있다.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는 동사 어간에만 결합하고 형용사 어간에는 결합할 수 없으므로, ‘열어라’는 어간이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오답풀이]** ① ‘썰는다’는 어간 ‘썰-’과 어미 ‘-는다’로 분석할 수 있다. ‘-는다’는 동사 활용에 쓰이는 어미이므로, ‘썰는다’는 어간이 ‘-는다’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동사이다. ② ‘춤구나’는 어간 ‘춤-’과 어미 ‘-구나’로 분석할 수 있다. ‘-구나’는 형용사 활용에 쓰이는 어미이므로, ‘춤구나’는 어간이 ‘-구나’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형용사이다. ③ ‘먹자’는 어간 ‘먹-’과 어미 ‘-자’로 분석할 수 있다. 청유형 어미 ‘-자’는 동사 어간에만 결합하고 형용사 어간에는 결합할 수 없으므로, ‘먹자’는 어간이 ‘-자’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동사이다. ⑤ ‘사람이나’는 ‘사람이+-나’로 분석할 수 있다. 체언 ‘사람’에 ‘이다’가 결합한 말인 ‘사람이다’의 어간에 ‘-(으)나’가 결합한 것이다.

13. [출제의도]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국물’이 [궁물]로 발음되는 현상은 ‘국’의 종성인 ‘ㄱ’이 그 뒤에 오는 ‘물’의 초성인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국물[궁물]’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에 해당한다. ‘뭇’이 [목]으로 발음되는 현상은 ‘뭇’의 종성에 있는 두 자음 중에서 ‘ㅅ’이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뭇[목]’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인 ‘탈락’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여 ‘줄’ 대신 ‘드릴’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②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여 ‘보고’ 대신 ‘뵈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③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여 ‘데리고’ 대신 ‘모시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④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큰아버지’를 높여 ‘예게’ 대신 ‘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벗다’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누명을 벗다.’에서 ‘벗다’는 ‘누명이나 치욕 따위를 씻다.’라는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사람이 죄나 누명 따위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라는 뜻의 ‘쓰다’가 될 수 있다. ‘배낭을 벗다.’에서 ‘벗다’는 ‘메거나 진 배낭이나 가방 따위를 몸에서 내려놓다.’라는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라는 뜻의 ‘매다’가 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안경을 벗다.’에서 ‘벗다’는 ‘사람이 자기 몸 또는 몸의 일부에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라는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라는 뜻의 ‘쓰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끼다’가 ‘배낭을 벗다.’에서 ‘벗다’의 반의어라고 할 수 없다. ⑤ ‘허물을 벗다.’에서 ‘벗다’는 ‘동물이 껍질, 허물, 털 따위를 갈다.’의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쓰다’가 될 수 없다.

[16~19] (인문) 한덕웅 외, 『사회심리학』

이 글은 다양한 휴리스틱에 의한 인간의 판단과 추론을 설명한 글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특정 사건이 전형적인 사례와 닮은 정도에 따라 추론하는 경향을 말한다.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마음속에 떠올리기 쉬운 정도에 따라 추론하는 경향이다.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은 특정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휴리스틱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도 있으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4문단에서 경찰관이 다른 사람 즉 용의자의 입장이 되어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예가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 상상이 반복될수록 상상한 장면이 사실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 결과 용의자를 선불리 범인이라고 단정 짓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짐작’하는 것이 휴리스틱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충격적이거나 극적인 사례들을 더 쉽게 회상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휴리스틱은 종종 판단 착오를 낳기도 하지만, 경험에 기반하여 답을 찾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각각 대표성 휴리스틱과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그리고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이 판단 착오를 낳게 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가상적 장면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면, 그 용의자가 정말 범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글의 중요 개념을 이해한다.

5문단에서 ‘휴리스틱은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수많은 대안 중 순식간에 몇 가지 혹은 단 한 가지의 대안만을 남겨 우리의 판단을 쉽게 만들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은 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며, 휴리스틱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고하며 인지적 노력을 절약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인간이 주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1문단에서 ‘판단을 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데서 정보 수집과 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자 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인간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

보를 처리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인지적 구두쇠’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④ 5문단에서 ‘휴리스틱은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개입한다.’고 하였으므로 휴리스틱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5문단에서 휴리스틱은 ‘수많은 대안 중 순식간에 몇 가지 혹은 단 한 가지의 대안만을 남겨’라고 한 데서 인간이 일상생활 속 판단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객관적 확률로는 B가 A보다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미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B가 A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영미에 관한 정보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정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어난 판단 착오이다. ㉠에서 ‘영미가 은행원보다 여행 블로그 운영자에 더 어울린다’고 판단한 것은 영미의 특징이 여행 블로그 운영자의 전형적인 속성과 겹치는지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A보다 B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영미가 여행 블로그 운영자일지 은행원일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여행 블로그의 특징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④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여행 블로그를 검색한 경험은 영미가 어떤 사람일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⑤ 사람들이 영미가 B일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은 영미가 은행원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영미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미의 은행원으로서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19.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는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나는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세차를 했다.’의 ‘보고’이다.

**[오답풀이]** ① ‘어떤 관계의 사람을 얻거나 맞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걱정하거나 두려워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0~23] (사회) 도미니크 살바토레, 『국제무역론』

이 글은 국제 무역의 발생 원인 및 무역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비교 우위 산업에 특화하여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역을 통해 무역 이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재화량의 조합을 소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 우위는 각국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변함에 따라 비교 우위도 변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

이 글은 ‘무역의 발생 원인 → 무역의 발생 원인으로 서 비교 우위 → 비교 우위의 발생 원인으로서 헷서의 이론 → 비교 우위의 변화 원인’의 단계에 따라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5문단의 ‘20세기 초의 경제학자 헷서는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비교 우위를 낳는다고 보았다.’를 통해 이론의 권위자인 헷서의 견해를 들어 각국의 산업 간 비교 우위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1문단의 마지막에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와 무역에서

수출입 재화의 결정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용 전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비교 우위’와 ‘기회비용’이라는 핵심 개념을 정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2~4문단에서 A국과 B국의 가상적 상황을 예로 들어 무역의 이익과 비교 우위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1.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5문단에서 ‘재화마다 각 생산요소들이 투입되는 비율은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선박 등은 자본이 집약된 재화이고, 신발·의류 등은 노동이 집약된 재화라고 사례를 들고 있다. 또한 노동 집약재에 비교 우위를 지닌 국가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화 생산 시 각 생산요소의 투입 비율이 왜 다른지, 또는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각 생산요소의 비율은 재화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6문단에서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은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자발적인 무역이 발생할 경우 각국은 자국의 비교 우위 산업을 특화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은 각 재화 생산량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④ 자발적인 무역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의 재화가 수출품이 되고, 그 반대는 수입품이 된다. ⑤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는 비교 우위의 원인이 되고, 이는 무역의 이익을 낳을 수 있다.

#### 22. [출제의도] 글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한다.

㉠ 앞의 논리 구조를 보면,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더 작으므로 A국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B국이 신발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아야 한다. 실제로 A국의 신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100(=10/1,000)대이지만, B국의 신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200(=3/600)대로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다.

#### 23. [출제의도] 가상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2017년 갑국의 선박 1척 생산의 기회비용은 가발 10/3(=100/30)개이다. 반면, 을국의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은 가발 6(=150/25)개이다. 따라서 을국의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2배(=20/3)보다 작다.

**[오답풀이]** ① 1970년 갑국이 선박을 2척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발 생산을 25개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생산가능곡선은 한 경제의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 선이므로, 갑국이 선박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때 줄어드는 양이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이다. 선박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가발 12.5(=50/4)개 이므로 갑국이 선박 2척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발 생산을 25개 줄일 수밖에 없다. ② 1970년 갑국은 가발 생산에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데, 가발은 노동 집약재이므로 갑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했을 것이다. ④ 2017년, 을국은 가발 생산에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갑국에 비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할 것이다. ⑤ 2017년, 갑국의 선박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가발 10/3개이고, 을국은 가발 6개이므로 선박 1개와 가발 4개를 교환하면 생산가능곡선 밖의 재화량 조합까지 소비할 수 있으므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량의 조합은 늘어나게 된다.

#### [24~26] (예술) 광동해, 「범종」

이 글은 우리나라 범종의 전형이 되었던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우리나라의 범종은 신라 시대에 전형적인 조형 양식이 완성되었으며, 그 조형 양식은 후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4문단의 ‘원나라의 침입 이후 전래된 라마교의 영향으로 범자 문양 등의 장식이 나타난다.’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시대에는 외국의 영향을 받아 조형 양식에 미약한 변화가 나타났다.

#### 2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자료와 연결하여 이해한다.

3문단의 ‘당좌 사이에는 천인상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가로 세로의 띠만 있는 일본 종과 차이가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종에는 천인상이 없다. 따라서 천인상 주변에 가로 세로의 띠가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 26. [출제의도] 정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다.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조선 초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중국 종의 주조 공법을 도입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종의 조형 양식을 따르게 되면서 신라 종의 전형적인 조형 양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오답풀이]** ② 고려 시대에는 범종이 소형화된 것은 맞지만,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은 미약한 변화 속에서 계승되고 있었다.

#### [27~30] (과학) 백성해, 「계와 주위」

이 글은 계와 주위, 경계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를 다시 주위와 에너지나 물질의 교환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 고립계, 주위와 물질 교환 없이 에너지 교환만 일어나는 닫힌계, 주위와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모두 일어나는 열린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므로, 계와 주위의 에너지 합 또한 일정하다는 점과 계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있다면, 계의 에너지가 감소할 때 주위의 에너지는 증가하며, 계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주위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상의 실험을 통해 계와 주위의 에너지 교환,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 경로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어떤 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로는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진행하면서 거치는 일련의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상태를 연결하는 경로는 무한히 많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1문단에서 과학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을 ‘계’라고 설명한 후, 이를 다시 고립계, 닫힌계, 열린계로 나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고립계는 주위와 에너지나 물질의 교환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 계로, 닫힌계는 주위와 물질 교환 없이 에너지 교환만 일어나는 계로, 열린계는 주위와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모두 일어나는 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와 물질 교환 없이 에너지 교환만’이 일어나는 계는 열린계가 아니라 닫힌계이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계의 에너지는 온도, 압력, 부피 등의 열역학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열역학적 변수들이 같은 계들은 같은 상태에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열역학적 변수들이 같은 두 계는 같은 상태에 있다는 설명은 지문의 내용에 부합한다. ② 2문단에서 열역학 제1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므로, 계와 주위의 에너지 합 또한 일정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④ 5문단에서 어떤 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로는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진행하면서 거치는 일련의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상태를 연결하는 경로는 무한히 많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계가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진행하면서 거칠 수 있는 경로는 무한히 많다는 설명은 지문의 내용에 부합한다. ⑤ 2문단에서 계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있다면, 계의 에너지가 감소할 때 주위의 에너지는 증가하며, 계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주위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 28.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2문단에서 계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때, 계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로 표시하며, 계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흡열 과정에 관련된 열은 +Q로 나타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보기>에서 비커의 물에 진한 황산을 넣어서 묽은 황산 용액을 만들면, 묽은 황산 용액은 물론 비커 주위의 수조 속 물의 온도까지 높아진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황산이 이온으로 되면서 열이 방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묽은 황산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발열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과 관련된 열은 -Q로 표시할 것이다.

**[오답풀이]** ② 비커의 물에 진한 황산을 넣었으며, 그로 인해 만들어진 묽은 황산 용액에서 열이 방출되었으므로,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립계는 주위와 에너지나 물질의 교환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 계라고 제시되어 있다. ③ 황산이 이온으로 되면서 방출한 열로 비커 속 물의 온도가 높아졌으며, 이 열이 수조 속 물에도 전달되었으므로, 비커 속 물의 에너지나 수조 속 물의 에너지가 모두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④ 황산이 이온으로 되면서 열이 방출되고, 이 열이 수조 속 물에도 전달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수조 속의 물은 묽은 황산 용액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할 수 있다. ⑤ 경계는 계와 주위 사이를 의미하므로, 비커 속의 물이나 수조 속의 물은 경계라고 하기 어렵다.

#### 29.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가]에 따르면, A는  $T_1$ ,  $P_1$ 인 초기 상태에서  $T_2$ ,  $P_1$ 인 최종 상태가 되었고, B는  $T_1$ ,  $P_1$ 인 초기 상태에서  $T_2$ ,  $P_2$ 인 상태를 거쳐  $T_2$ ,  $P_1$ 인 최종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와 B는 최종 상태가  $T_2$ ,  $P_1$ 인 같은 상태에 있으므로, A와 B의 실린더 속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래프에서 ㉠은 A 경우와 B 경우의 최종 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실린더 속 내부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같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A의 경우 실린더를 가열하여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가  $T_1$ 에서  $T_2$ 가 되도록 하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A의 경우 ㉠ 상태에서 ㉢ 상태가 되는 경로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② B의 경우 피스톤을 고정하여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실린더를 가열하여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가  $T_1$ 에서  $T_2$ 가 되는 동안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이  $P_1$ 에서  $P_2$ 로 증가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B의 경우 ㉠ 상태에서 ㉥ 상태가 되는 경로에서 온도가 점차 높아진다. ③ B의 경우 온도가  $T_2$ 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정시켰던 피스톤을 풀면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이  $P_1$ 이 될 때까지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B의 경우 ㉠ 상태에서 ㉢ 상태가 되는 경로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④ 두 계가 같은 상태일 때, 두 계라 할 수 있는 실린더 속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 상태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같을 것이다.

#### 3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열역학적 변수들이 같은 계들은 같은 ‘상태’에 있다

고 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문맥을 고려할 때 ‘같은’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다.’라는 의미의 ‘동일하다’와 문맥적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동반하다’는 ‘일을 하거나 길을 가는 따위의 행동을 할 때 함께 짝을 하다.’ 혹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생긴다.’라는 의미이다. ③ ‘동화하다’는 ‘성질, 양식(樣式),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아지다.’라는 의미이다. ④ ‘균일하다’는 ‘한결 같이 고르다.’라는 의미이다. ⑤ ‘유일하다’는 ‘날수가 많다. 또는 오랫동안이다.’라는 의미이다.

### [31 ~ 33] (현대시) (가)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나) 이준관, 「구부러진 길」

(가)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이 작품은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에서 발견하는 서로 의존하면서 상생하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느티나무들은 함께 자라면서 때로는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기도 하지만 ‘아픈 곳을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며, 늙어서는 ‘세월에 굵고 터진 상처’를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한다. 또한 느티나무들은 오랜 삶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온 고을’에 뿌려 풍요로운 경험과 지혜를 모든 생명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며 공생하고 나누는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가는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준관, 「구부러진 길」

이 작품은 ‘구부러진 길’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변주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삶, 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부러진 길’과 그것의 변주라 할 수 있는 ‘구부러진 하천’은 ‘민들레’, ‘감자를 심는 사람’, ‘어머니의 목소리’, ‘물고기’, ‘들꽃’, ‘별’, ‘산 등 자연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장소이다. 아울러 ‘구부러진 길’은 ‘구부러진 삶’,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으로 변주되어 세월의 질곡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삶, ‘가족’과 ‘이웃’을 함께 품고 가는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 3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느티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 ‘재발거리고 떠들어 썩고 ~ 기대기도 하고’ 등에서 어미 ‘~고’를 반복하여,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라서는’과 ‘달았다가는’에서는 ‘~는’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나)에서는 시적 흐름을 따라 ‘구부러진 길’, ‘~수 있다’, ‘품고’, ‘좋다’ 등의 시어들이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느티나무가 나고 자라 늙어가는 시간의 흐름을 찾을 수 있으나 (나)에서는 그러한 시상 전개를 찾을 수 없다. ④ (가)에서는 느티나무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는 일부 청각적 심상이 쓰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중심으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32. [출제의도] 관점을 적용하여 작품들을 감상한다.

<보기>는 자연의 모습에서 현대 문명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원리를 성찰한다는 관점에서 (가), (나)의 작품을 감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자에 의한 약자 지배가 심화’됨은 <보기>에서 제시한 현대 문명사회의 문제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에서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의 삶을 ‘자연 공동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현대 문명사회로 인해 다양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할 단서를 찾을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산비알에 돌발에 저절로 나서’는 <보기>의 ‘생겨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시든 잎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 세월에 굵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하다가’ 부분에서는 <보기>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 의존하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룬’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구부러진 길’은 ‘민들레, 사람, 어머니, 들꽃’ 등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별, 산’ 등의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⑤ (나)의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은 조화와 공생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기>의 ‘과도한 경쟁과 강자에 의한 약자 지배가 심화’되는 현대 문명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인간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3. [출제의도] 시어들의 의미를 파악한다.

[A]에서 화자는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좋다고 말한다. 여기서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은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과 대비가 되고 있다. 이어서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은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 ‘구부러진 삶’으로 변주되고 있다. 이러한 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울퉁불퉁’과 ‘구불구불’은 ‘반듯한 길 쉽게’와 의미상 대비를 이루고, 비유적 표현인 ‘흙투성이 감자’의 이미지와는 어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시적 맥락으로 보아 ‘흙투성이 감자’나 ‘구부러진 삶’에서 부정적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③ ‘울퉁불퉁’과 ‘구불구불’은 ‘흙투성이 감자’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구부러진 삶’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찾을 수는 없다. ⑤ 시적 맥락으로 볼 때 ‘반듯한 길’과 ‘구부러진 길’은 의미상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 ‘구부러진 삶’이 ‘좋다’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4 ~ 37] (현대소설) 이태준, 「농군」

이 작품은 1939년 『문장』지에 발표된 이태준의 단편 소설로, 조선 농민의 만주 이주기를 다루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윤창권은 아내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일제 치하의 고향을 떠나 만주로 향한다. 윤창권을 비롯한 조선 이주민들은 개간권을 사들여 밭농사를 짓던 땅에 물길을 내고 벼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만주 토민들의 격렬한 반발과 마주하게 된다. 온갖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자신들이 뚫은 물길을 통해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윤창권이 목격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이 소설에는, 순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조선인들의 절박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 34.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이해한다.

‘창권’이 느닷없이 들이닥친 ‘토민들’과 대치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시제가 활용되어 창권이 처한 상황의 현장감이 부각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의 대화가 직접적으로 인용된 부분은 창권의 ‘덤벼라! 우린 여기서 못 살면 죽긴 마찬가지다!’로, 이 외에는 인물의 대화가 직접적으로 인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대화가 직접적으로 인용되면서 사건의 진행이 느려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지문에서는 인물의 내면보다는 시간에 따른 사건의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 ③, ⑤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문에서는 시점의 변화 없이 사건이 일관되게 3인칭 서술자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다.

### 3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오금이 뻘다’는 ‘마음을 졸이다’, ‘두려워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오금이 저리다’, ‘오금이 움츠러든다’와는 반대되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다. ㉠에서 이 표

현은 ‘날개죽지처럼’이라는 비유와 함께 사용되어, 토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분통을 터뜨리고 저항하기 시작하는 창권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물길을 내는 데 실패하면 벼농사를 짓지 못해 잡곡을 뿌릴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그 다음해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될 것임을 연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인들이 처한 상황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에서는 창권이 맡은 대간선의 구역을 길이, 넓이, 깊이를 표현한 수치와 함께 밝힘으로써 창권이 맡은 공사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는 쿨리들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이들이 조선인들의 공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면모를 표현하고 있다. ④ ㉤에서는 ‘~에서 조선 사람들이 내려왔다’, ‘~에서 조선 사람들이 나타났다’와 같이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창권이 당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나타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해 작품을 감상한다.

조선인들과 ‘토민들’의 대립은 양측 모두 ‘장자위푸’라는 동일한 공간을 놓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생활 양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데서 일어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조선인 쪽이다. 만주인들은 밭농사를 짓고 잡곡을 재배하는 기존의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시도하는 조선인들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추운 날씨와 만주인들의 언어는 창권으로 하여금 ‘장자위푸’라는 공간에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③ ‘토민들’은 이 땅에서 밭농사를 짓고 잡곡을 재배하며 생활해 오던 사람들이다. 조선인들은 이 땅에 물길을 내고 벼농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고향인 조선에서 유지해 오던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토민들’은 이러한 시도가 자신들이 유지해 오던 기존의 생활 방식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동족이 만주인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붓도랑은 우리 목줄이 아니고 뭐냐!’고 생각하는 창권의 모습에서, 붓도랑을 내는 문제는 곧 ‘목줄’, 즉 생존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7. [출제의도] 작품의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A]는 네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문단은 ‘이곳 토민들’, 즉 만주인들이 조선인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개간 작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단은 설득이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점점 붓도랑 공사가 어려워져 가는 상황을, 세 번째 문단은 다시 만주인들을 설득하지만 실패하게 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네 번째 문단은 지칠 대로 지친 조선인들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결국 [A]는 만주인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설득이 실패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동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에 부딪친 조선인들의 문제가 여간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조선인들의 설득과 만주인들의 반대,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선인들이 재설득에 나서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조선인들과 만주인들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이 교차되고 있으나, 이들의 입장차가 좁혀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만주를 배경으로 한 조선인들과 만주인들의 갈등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짐작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배경이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탐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조선인 공동체가 자신들의 공사에 반대하는 만주인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가 난관에 대처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물길을 내어 벼농사를 지음



으로써 낯선 땅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38 ~ 40] (고전소설) 작자 미상, 「운영전」

이 작품은 선조 때의 어느 봄날, 유영이라는 선비가 안평대군의 거처였던 수성궁에 놀러갔다가 취몽 간에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녀의 애인 김진사를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고 깨어 보니 꿈이었다는 몽유록계 소설이다. 궁중의 구속적인 생활 속에서 대군의 문중에 출입하는 청년 시인 김진사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운영은 남의 눈을 피해 그와 서신을 교환하고 밀회를 하다가 발각되어 옥중에 갇힌 끝에 자결하며, 궁 밖에서 운영을 기다리던 김진사도 그녀의 장사를 치른 다음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고전 소설 중에서 보기 드문 비극적 성격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세적 가치의 억압에 반대하며 인간 본연의 솔직한 감정을 긍정하고 있는 작품이다.

38. [출제의도]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양상을 이해한다.

[A]에서 ‘시를 짓는 중에 우연히 나온 말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군께 의심을 받으니 첩은 만 번 죽어도 유감이 없나이다.’, [B]에서 ‘너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 마음을 안단 말이니? 지금 막시 한 편을 지으려는데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야.’를 통해 운영이 자신의 진심을 감춘 채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대군은 궁녀들의 시에 대해 ‘처음 보았을 때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었으나 거듭 읽노라니 자란의 시가 뜻이 심원하여 나도 모르게 감탄하고 흥겨운 마음이 드는구나. 나머지 시들 또한 모두 맑고 좋은데, 유독 운영의 시만은 서글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이거늘 그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준엄히 캐물을 일어로되 그 재주가 아까워 그냥 덮어두려고 한다.’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대군이 다른 궁녀들의 시와 운영의 시를 비교하며 다른 궁녀들의 시에는 심원한 뜻이 있고 그중에 자란의 시가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운영의 시는 이 시들과는 다르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시에 담겼다는 말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② [A]에서 대군은 ‘시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서 가리고 숨길 수가 없는 법이다.’라고 하며 이를 근거로 운영의 ‘시를 짓는 중에 우연히 나온 말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군께 의심을 받으니 첩은 만 번 죽어도 유감이 없나이다.’라는 대답이 운영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운영의 시에 진사에 대한 호감이 드러났고 이를 통해 운영은 진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운영이 거짓을 대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③ [B]에서 토론 중에 혼자 병풍에 기대어 흠으로 빗어 놓은 인형처럼 근심스레 말이 없는 운영의 모습을 보고 소옥은 ‘주군의 의심을 받더니 그 때문에 근심스러워 말이 없는’지를 묻고 있다. 이로 보아 소옥은 [A]의 상황을 근거로 운영이 침묵하는 이유를 ‘낮에 연기를 읊은 시로 주군에게 의심을 받’아 근심스러운 것 혹은 ‘주군의 뜻이 내게 있겠기에 속으로 기뻐서 말이 없’다고 하여 추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B]에서 은섬은 ‘어딘가 뜻이 향하는 곳이 있어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니’라고 물으며 운영이 마음을 떼매 두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어디 ~ 내가 한번 맞춰볼까?’라고 하며, 운영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 아닌 사실인지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의도] 삽입시의 의미를 소설의 내용과 연관지어 이해한다.

‘얼굴 씻으매’ 흐르는 ‘눈물’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운영의 서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란은 운

영이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궁녀로, ‘눈물’이 그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진사는 자신을 ‘빈친한 유생’이라고 하나, 운영은 시에서 ‘베옷 입고 가죽 띠 두른 선비’인 진사의 모습을 ‘옥 같은 얼굴 신선과 같지’라고 표현한다. 이는 진사에 대한 운영의 호감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주렴 사이로만 바라보나니’에는 대군을 찾아 궁에 오는 진사를 문틈으로 바라보는 운영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월하노인의 인연 어디 없는지?’에는 진사와의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라지만 외부와의 교류가 금지되어 이러한 소망의 실현이 불가능한 처지에 대한 운영의 한탄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토론 중에도 답답함을 느끼며 병풍에 기대어 말이 없던 운영의 속마음은 시에서 거문고를 타며 드러내는 한스러움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작품 속 상황과 관련된 적합한 한자성어를 파악한다.

㉠에서 벽에 구멍을 뚫고 진사를 엿보는 운영과 운영의 뜻을 알고 모통이를 향해 앉아 있는 진사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로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재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을 뜻하며, 원인에 응당한 결과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견물생심’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을 뜻하는 말이다. ④ ‘역지사지’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이라는 뜻이다. ⑤ ‘수구조심’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41 ~ 42] (시나리오) 김영현·박상연, 「뿌리 깊은 나무」

이 작품은 한글 창제라는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주인공 이도(세종)가 소이와 같은 백성들과 힘을 합쳐 반대 세력을 이기고 결국 한글을 창제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낸 시나리오이다. 지문은 이도가 소이와의 대화를 계기로 한글 창제를 결심하게 되는 장면이다.

41. [출제의도] 연출 계획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소이의 대답을 들은 이후 결연한 표정을 짓는 인물의 모습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으려면 배우의 얼굴을 가까이서 찍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에서 이도가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른 인물의 모습을 삽입하면 이도의 표정을 보기 어렵다. ④ ㉠에서 이도가 충격을 받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에서 이도가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무를 보지 않는다며 정인지를 질책하는 이도의 대사에는 백성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당대 정치가들에 대한 이도의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도가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좌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농사직설’을 편찬했으나 한자를 읽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소용이 없자 좌절하는 이도의 모습은 백성의 입장에서 고뇌하는 왕을 그려내고자 한 것으로 보기에 적절하다. ③ 백성이 아기처럼 때를 쓴다는 이도의 말에 소이가 아기라면 키우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기는 보살피고 키우는 대상이라는 ‘아기’의 함축적 의미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왕이 하위 계층인 소이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이도가 하위 계층과 소통했다는 설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글자방’에서 이도와 소이가 의사소통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글자방’이 한글 창제의 과정에서 소이와 같은 하위 계층과 소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3 ~ 45] (고전시가) 이신의, 「단가육장」

이 작품은 유배지에서의 생활과 심경을 담아낸 6수의 연시조이다. 작가는 광해군 9년(1617년) 인목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로 유배되는데, 그때의 심정과 처지가 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다른 시조와 마찬가지로 자연물에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5장의 ‘명월’은 머나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벗으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며, 6장의 ‘매화’는 그 ‘향기’로 보아 작가가 지향하는 지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한다.

5장의 ‘인간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라는 구절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4장에서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찾아볼 수 없다. ③ 6장에서는 점층적인 전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4장과 5장은 현재 귀양살이 중인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6장에서는 ‘설월’, ‘매화’에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와 대비되는 색채는 나타나지 않는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매화는 충절과 지조를 상징하는 소재로, 매화의 향기는 귀양살이를 오기 전 화자의 삶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풀어낸 시름’은 ‘적객’이 ‘벗이 없’는 외로운 귀양살이의 상황으로 인해 생겨난 정서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제비를 보며 자신의 시름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② ‘신의’는 믿음과 의리로, 화자는 어디를 가든 따라오는 명월의 모습에서 신의 있는 벗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③ ‘명월’을 ‘너’로 지칭하며 인격을 부여하는 모습과 ‘매화’를 보기 위해 ‘잔을 잡고 창을 여’는 것에서 자연물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④ 모진 추위 속에 꽃을 피워내는 매화에 조선 사대부들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임금에 대한 충절과 지조의 이념을 투사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이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은 ‘닐로만 하노라’와 연결되어 제비가 ‘종일’ 사설을 풀어내는 것보다 자신의 시름이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한다. ㉡은 멀리 유배 온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간 데마다 따라오’는 ‘명월’에 대한 신의를 강화한다.

[오답풀이] ① ㉠과 ㉡ 모두 화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심리적 거리감은 ㉠이 아니라 ㉡을 통해 드러난다. ④ ㉠은 내면의 시름을 풀어내어 해소하는 시간이며, ㉡은 화자가 있는 유배지와 ‘인간’ 간의 거리이므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⑤ ㉠과 ㉡ 모두 낙관적이든 비판적이든 앞날을 헤아려 보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다.